

사회

개교 3년 넘게 정문 닫힌 학교

광주 북구 하백초, 부지 확보 못해 학생 1000명 300m 돌아 후문·쪽문 통학

문 열면 2.5m 벼랑 ... 통학불편에 추락위험까지

광주지역 한 학교에서 정문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1000여명의 학생들이 개교 3년이 지나도록 후문과 쪽문으로 등교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할 구청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정문과 잇닿은 출입로의 부지 매입을 미뤘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2일 북구 매곡동 서광 인텔파크 앞 부지(면적 7470㎡)에 33학급 규모의 하백초등학교가 개교했다. 현재 학생 수는 모두 987명이다.

재학생들은 주로 인근에 사는 서광 인텔파크·금호아파트·부림아파트·삼성아파트·중흥S클래스·삼익아파트 입주민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정문과 연결된 통학로 부지 매입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너비 7m의 정문은 폐쇄돼 있다. 이 정문과 연결된 통학로 부지 높이가 정문 보다 2.5m 낮아 흙을 돋워 길을 내야하지만 부지 확보가 안돼 학생들이 정문을 나서면 추락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익아파트·삼성아파트·중흥S클래스에 사는 학생들은 집과 가까운 정문을 두고 200m~300m 가량 떨어진 후문과 쪽문을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하백초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정문과 연결된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북구에 수차례 촉구해왔다.

북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부지 매입을 미뤘다. 현재 이 부지는



교문앞은 낭떠러지

광주 하백초등학교의 굳게 닫힌 정문. 사진 앞쪽 쪽 개진 땅은 사유지로, 구청이 매입한 후 땅돌을 공사를 해야 정문앞길이 생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인 소유로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해 대해 북구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곳으로, 구청 현안사업이기도 하다”라며 “다음달 중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통학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 중·고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우범지대로 변해 아이를 혼자 학교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사석유 판친다

광주·전남 특별단속 제조범 등 14명 적발

주유소에서도 팔아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사석유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들어 유사석유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전남에서 1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석유 제조 사범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판매 5명, 중간공급유통 1명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이뤄진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적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사석유 사범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광주·전남의 휘발유값이 평균 2000원에 육박함에 따라 기존 ‘길거

리 판매’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조한 유사석유를 주유소에서 파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제조한 뒤 주유소에서 판매한 정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시 북구 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2만ℓ(시가 3500만원 상당)를 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보일러 등유에 활성탄을 넣어 색소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권모(33)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순천시 모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34만8000ℓ를 제조한 뒤 이를 공사현장 등에 팔아 2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들어서만 전국에서 유사석유 사범 28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73) 김종두



아들 내외 불화 70대 노모 목매

“싸우지 말아라” 유서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내외의 화해를 바란던 70대 노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주택에서 A(여·7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옆집 주민 박모(여·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사는 할머니가 집 밖에 서있어서 가봤더니,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집 안방에는 ‘아들아,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통장·현금·휴대전화 등이 놓여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A씨의 아들(38)은 약 2개월 전부터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으며, A씨는 이로 인해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녹색아파트 ‘아름드리 나무 갈등’

광주 북구 신안동 모아A 주민들

담장붕괴 우려 “없애자” “안된다”

광주지역 첫 ‘저탄소 그린마을’로 조성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안에 심어진 느릅나무와 메타 세쿼이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나무를 베어야 한다, 안된다”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 신안동 모아아파트 180세대 주민들간 담장이 훼손되고 있다. 단지 내 조성된 지름 30cm·높이 2.5m~4m의 느릅나무·메타 세쿼이

아 때문이다. 이들 나무는 지상 주차장과 맞닿은 담장 주변에 20~30년 이상 된 40그루가 2.5m~5m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 하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위로 이들 나무의 수액이 떨어지고 뿌리가 담장을 파고들어 담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쪽에서는 “담장 붕괴 우려가 있고, 수액 때문에 차량 피해가 많은 만큼 나무를 잘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전국 우수 그린 마을로 선정된 아파트인데, 함부로 나무를 베어서야 되겠냐”며 반박했다.

모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17일 조경수 제거 찬반투표 설문 결과(찬성 90표·반대 12표·기권 66표)를 토대로 2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유지에 해당되는 만큼 개입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입주민 김모(57)씨는 “전국 우수 저탄소 그린 마을로 선정돼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곳인데, 나무를 베는 게 말이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아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관계자는 “나무 뿌리 때문에 담장 붕괴가 우려되고 입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을철에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맞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농민회, “5억 쌀 횡령” 통합 RPC 고발

검찰에 비리 수사 요청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21일 광주 통합 RPC(미곡처리장)를 검찰에 고발하고 업무상 횡령 등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시농민회는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

월 자체감사 결과 쌀 부족분이 5억원이 넘고, 감사기간 중 전 대표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는 데도 통합 RPC가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농민회는 또 “5억원 이상의 쌀을 빼돌리려면 전 대표 뿐 아니라 회계 담당이나 직원 등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통합 RPC를 고발했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통합 RPC 관계자는 “자체감사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도정수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생긴 착오였고, 자살한 전 대표도 열심히 RPC를 운영하다가 흑을 받게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필로폰 투약·판매 2명 검거

전남경찰 마약수사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필로폰을 판매한 박모(45)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유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유씨에게 필로폰을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1g(33명 동시 투약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1일 오전 강진군 변영회원 50여명이 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광주경찰청이 강진장학재단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산 빈 축사서 수천만원 투견도박



○인적이 드문 아산의 빈 축사에서 ‘판돈’ 수천만원을 끌고 투견도박판을 벌인 남녀 35명이 무더기 경찰서행.

○21일 임실경찰청에 따르면 차모(56)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30분간 임실군 관촌면 아산의 빈 축사에서 1900여만원을 끌고 투견도박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 등은 총책과 모진책, 운반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했으며, 경찰은 여죄를 깨기 위해 현장에서 현금과 수표, 투견 12마리 등을 압수.

/전북취재본부 - 서은종기자 seo@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일